

우리 服飾史上에서 본

守門將服에 對한 小考

朴 鎮 柱

守門將은 王朝 巨大한 官員 軍卒의 全體的 構造中 一개 微細한 軍兵으로 이를 考證함에 있어 韓國 服飾構造의 大綱을 一瞥하고 다시 守門將의 服飾에 對하여 言及하고자 한다.

大體로 우리의 服飾構造는 國制와 中國制의 二重組織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高句麗의 通溝地方 壁畫에서 볼 수 있드시 北方 所謂 胡服系統을 밝은 純然한 國制가 있었고 羅代 金春秋가 唐에서 冠服을 導入하고 宋代의 高麗와 明·清代의 李朝에 걸친 近 千年에 이르는 中國制 襲用의 時期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全 人口의 몇 百分之一에 該當하는 官員에 限한 것이고 그아래 庶民들의 制度는 조금 달라졌다 하더라도 衣(赤古里) 袴(바지)의 모양은 大同小異하게 現在에 이르기 까지 高句麗代의 衣袴를 그대로 襲用하고 있는 셈이다. 또 우리나라 軍兵의 服色도 國制와 中國制의 二重組織이 있었다. 國制에도 甲士와 正兵이 있었으며 甲士는 兜具와 甲옷을 입고, 正兵은 步兵으로 窄衣와 窮袴를 입고 있었다. 騎馬兵에는 馬甲까지 있었음을 通溝地方 壁畫를 通하여 볼 수 있다. 이 투구는 中國의 影響을 받지 않은 것으로 凜凜한 上古 우리 民族의 尙武의 氣象을 그대로 들어 내는 것이다.

또 南方 三國時代의 투구는 圖兜에 앞만 簷이 달린 것이 보인다. 當時의 甲옷은 皮甲이나 鐵甲으로 麟甲이 아닌 長方形의 甲片을 綴하여 만들었던 것 같으며 頸甲·手甲등도 完備되어 있고 長槍을 들고 乘馬 馳驅 戰鬥하고 있었다.

守門將도 一公兵士라고 한다면 國制로서는 이러한 갑옷을 입는 것이 上代의 遺制라 보아진다. 그러나 新羅統一기 부터 高麗期에 걸친 時期에 있어서는 國制의 長襦·窮袴를 입고 長襦 위에 붙인 衿의 色으로 그 隊伍와 階級을 區別한 것 같다. 이것은 三國史記 雜志 職官下武官條에 昭詳하다. 이렇게 되면 이는 所謂 新羅 옷으로서 花郎의 服色도 이에서 멀지 않으리라 보아진다.

麗代에 들어와서는 軍制가 整齊되고 記錄로 昭詳이 남아 있다. 高麗史 兵志宿衛條를 보면 太祖 以來로 驍勇한 者를 뽑아 宮城宿衛에 臨케 하니 時代에 따라 損益은 있어도 鐵甲을 하기도 하고 紫衣帶 劍 持弓으로 番을 따라 宮城을 지키게 하였다. 또 各門에는 圍宿軍을 두어 將校와 監門衛軍 몇名씩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當時 「高麗圖經」에 보이는 軍兵 服色으로는 「介冑烏革間鐵之爲文」「兜整」「以皮蒙首」 등의 記事가 보이며, 麗史 輿服志에도 「衣甲」「鐵甲」「衣白甲」「白鐵甲」「白甲」「兜傘」「衣朱甲」「紫甲」 등의 類別이 있었고 官府門衛校尉는 머리에는 展脚幞頭를 쓰고 몸에는 紫文羅窄衣를 입고 革履를 신었다고 있으며 神旗軍兵들은 머리에는 文羅의 頭巾을 쓰고 靑布로된 窄衣를 입고 있는데 前襟과 背에 團號를

달고 王宮使命은 龍文을 하였다고 있다.

이러한 服色은 國俗의 服飾과 宋나라 制度의 二重組織에서 이루어진 때문이다. 이 制度도 蒙古의亂以後 다시 蒙古의 服飾을 채택하게 되며 混亂이 빚어졌다. 이리하여 忠烈王代에 와서는 宮中侍衛軍에 蒙古人을 排置하기도 하였다.

李朝代를 보면 崇文卑武의 風으로 李太祖가 蚩蚩武夫에서 일어 났음에도 不拘하고 李成桂는 自己의 無識함을 뉘우쳐 太宗에게는 글을 가르쳐 高麗때 科擧까지 及第시켰다. 이 뒤 守成의 業을 닦음에 있어 王以下 文弱에 흐르고 國家 創成의 때에도 崇武의 氣風과 制度를 助長하지 못하였다.

文臣에 對한 까다로운 服色이 있음에 比하여 武臣의 그것은 高麗때 만도 못한 疎雜한 體制였다. 아래에 實錄에 散見되는 武官 軍士服色에 對하여 말하고 世宗代의 甲冑를 들면, 太宗 6年 7月 豐海道 觀察使 申浩의 上言에 따라 諸道의 軍士의 靑色防衣를 定하였다.

時分 區代	李 朝 初 期	李 朝 中 期	李 朝 末 期
頭 飾	頭兜 圖兜 笠子 頭巾	兜鍪 氈笠	氈笠
袍	各種甲衣帖裏(天翼)直領	甲衣(戰袍)天翼快子	天翼 俱軍服
衣	袴 胴衣	〃	동다리(덧등옷)
袴	窮襦	〃	
履	革履	〃	

李朝當時 武官服의 變遷

다시 侍衛甲士의 白衣도 문제 되었던 것으로 甲冑 안에 받쳐 입는 裏衣에 對하여 實錄에

「甲寅兵曹啓 本朝因循舊習 大小侍衛軍士 皆着白衣 非徒軍威無光 白色本非吉服 今後着甲侍衛時 裏衣皆用鴉青 從之」〈世宗十九年九月 卷七十八〉 또 實錄에 「遺內官李貴…………贈昌盛 鑲子鐵甲 一領 頭口一」〈世宗九年四月 卷三十六〉이라 하여 鑲子 鐵甲과 頭口를 明使에 贈呈하고 있다.

世宗實錄에 「兵曹啓 內禁衛 常時侍衛 勿令着甲只佩環刀 大朝會則並令着白鐵甲 殿內各十人左右分立 其餘分立於月臺東西 從之」〈世宗二十一年二月 卷八十四〉라 하여 內禁衛의 常時 侍衛에는 着甲을 하지 않고 다만 環刀만 차고 大朝會 때만 白鐵甲을 입고 左右에 十名式 分立하고 그餘는 月臺에 分立하기로 한 것이다.

또 世宗元年의 記錄에는 備禮行幸 때에는 步甲士는 着甲하고 行首는 步行하고 常時 幸行 때에는 甲士는 常服을 하고 佩劍을 하고 行首는 都馬로 쫓기로 하였다 〈世宗即位年八月 卷一〉

林下筆記에 보면 武班은 章服(冠帶)속에 鐵甲을 입었고 그러기에 拜하면 소리가 난다고 하였다. 正祖가 그 鈍함을 念慮하여 狹袖로 바꾸었다고 하였으며 그후 武班은 戰笠밑에 駿帽을 썼다. 章服 밑에 鐵甲을 입은 風은 世宗三十二年 正月 梁誠之 時務十策속에 그의 建議가 들어 있으므로 그후의 일이라 생각한다.

成宗實錄에

武臣에 帖裏를 내리는 記事가 보인다. 그때 軍士들이 입은 短袖窄甲 赤古里 沙乙甲(紙甲의 一種) 回項膝甲 月老只(?)를 成宗 二十二年 五月 卷二百五十三의 都元帥 許琮啓事目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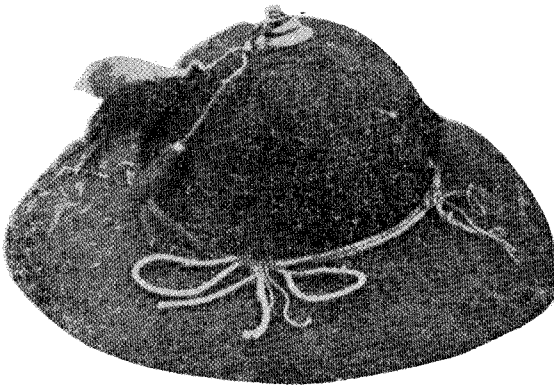
下卒의 一職인 守門將은 英祖때 까지는 一定한 官職이 없이 武官 四品 以下를 畵번으로 任命하여 大關門을 지키게 하였으나 그 뒤 正職삼아 定員을 두고 官廳을 設置하여 國王으로 부터 受點한 者를 任命하였다.

守門將은 처음에는 23名이었으나 正祖때에 와서 6名을 더 두어 29名으로 하고 參上官(從三品以下 從六品) 15名과 參下官(從七品以下) 14名을 두었는데 中人과 庶人 중에서 選拔하였다.

守門將이 머리에 쓴 帽子로는 빙거지를 썼는데 元來 빙거지란 兵笠 戰笠 氈笠의 訛傳으로 빙거지라 하였던 것이다.

빙거지는 北方民族의 帽子와 類似하며 高麗史에 依하면 禡王때에 明나라 官吏의 服制를 수입할 때에 氈帽도 가져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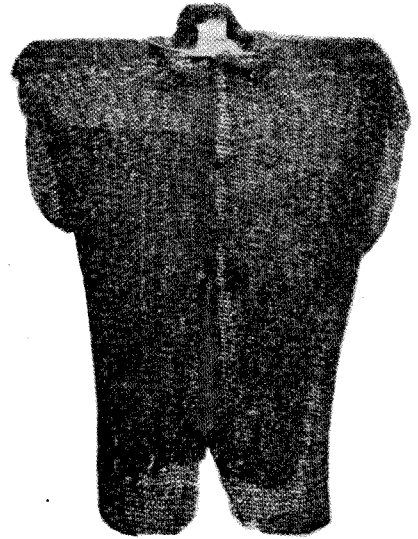
李穡의 「三官紀」에 依하면 우리나라 西北地方 사람이 많이 썼던것으로 記錄되어 있으며 光海君 十年(A. D. 1618年)에 滿洲出兵이 있는 뒤로부터 國中에 氈帽를 쓰는 風이 盛行하였으며 仁祖五年(A. D. 1627年)에 胡亂이 있은후 士大夫까지도 썼던 것이다.



빙거지

빙거지는 “안울림빙거지”였다. 안울림 빙거지는 遮陽의 裏面에 雲文이 있는 남색비단으로 되어있으며 그밖에 빙거지는 남색비단이 있는 것이 있고, 下卒은 역시 빙거지는 쓰되 遮陽 裏面이 아무친도 없는 것을 썼던 것이다. 武班이 쓰던 帽子로는 玉鶯笠을 비롯하여 朱笠(猛虎鬚의 裝飾이 있다) 말뚝빙거지 戰巾·갈대기·草笠(驛卒은 검은빛)·草笠笠飾(別監用) 등을 들 수 있다.

신발은 보면 于先 冕服의 신으로 爲이 있으나 그것은 中國樣式이고 靴나 履를 보면 男子의 境遇와 女子의 境遇가 있는데, 男子用으로는 男鞋(갓신)·郎鞋(太士鞋)·麻鞋(미투리)·草鞋(집신)·木鞋(나막신) 등이 있고·女子用으로는 女鞋(갓신)·女兒鞋·麻鞋(미투리)·木鞋(가막신 발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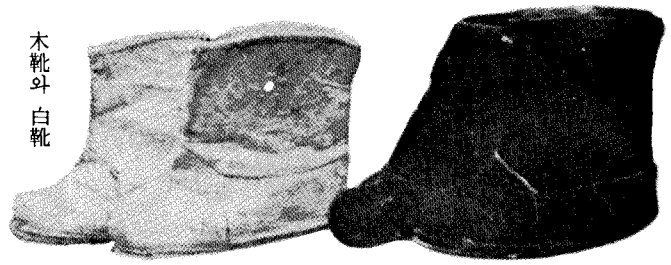


鍊子 鐵甲(鐵條로 된 小環이 서로 꿰어 졌다)



俱軍服

이 있다 하겠으며 前記 鞋라하면 운두가 높은것을 말하며 운두가 낮은 것은 履라 하며 二重의 樣式을 並用하하였다 좀더 말하면 前記한 履는 單창이고 寫은 結창인 것을 알 수 있다.



木靴와 白靴

守門將은 미투리를 신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武班인 守門將이 環刀를 지든것은 特別한 때에 限하였으며 平常時는 稜杖을 잡고 서 있었던 것이나 여기서 우리가 只今에도 볼 수 있는 몇 몇 刀劍을 적으면 四寅劍을 비롯하여 長劍·龍頭劍·雲劍·杖劍·禁軍月刀·靑龍刀·三技劍·細月刀·佩月刀·環刀·鑿刀·銳刀·小月刀 등 그밖에 몇몇이라 하겠다. 守門將은 宮門 守備를 嚴하게 하여 符信을 制定하고 武官 隊卒을 差定하여 各門을 把守시켰다. 宮門은 兵曹에서 正兵 甲士를 諸所에 分屬시켜 把守보게 每大門에 30人, 中門에 20人, 小門에는 10人, 宗廟門에는 4人을 把守시켰다. 또 宮中門은 初昏에 닫고 平明에 열었으며 都城門은 人定(二更一二十八回擊)에 닫고 罷漏(朝五更에 大鐘을 三十三·四擊)에 열었다.



守門將의 모습

宮門의 開閉는 注書와 都摠府 堂下官 司鑰(掖庭署의 雜職 <正六品>) 이 開閉하고 鑰匙(열때)는 承旨에게 들었으며 行在所에 있어서 守門將이 鑰匙를 맡아 命을 기다리기도 하였다.

服飾史上에서 보면 그 時代에 따라 時代마다 조금씩 變遷 하였으며 때에 따라서는 크게 變遷하기도 하였으나 李朝末葉의 守門將服이라면 俱軍服을 입고서 머리에 는 빙거지를 쓰고, 바른 손에 稜杖을 잡고서 있는가 하면 때로는 등에 環刀를 지기도 하였다.

얼굴에 疎髯은 더욱 武人답게 보이며 그 凜凜한 氣象은 어느모로 보나 大門을 맡

길만 한 勇猛한 姿勢가 보였다 하겠다.

前述한 몇가지 만으로서도 발끝에서 머리에 이르기 까지 하나 하나 事大的이며 階級的 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모두가 다 禮를 國是로 하든 李朝人의 信念이요 思考임을 말하고 있다.



草笠笠飾(別監用)

參考文獻：三國史記志·高麗史輿服志·高麗圖經·李朝實錄·經國大典·李朝前期服飾考·金東旭著 文獻備考·金和鎮氏·考證.